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3

Dutch Modern Housings

원제 :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호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 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역자 주>

| 목 | 차 |
|-----|----------------------------------|
| 01_ | 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
| 02_ | 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
| 03_ | 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
| 04_ | 건축가의 새로운 역할 |
| 05_ | 전원도시의 전통 |
| 06_ | 집합성과 공유공간 |
| 07_ | 표준화 |
| 08_ | 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
| 09_ | 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

※ 저자 호린베르흐(Donald I. Grinberg)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연구하였다. 부인이 네덜란드인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호린베르흐 자신도 능숙하게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게 되어, 네덜란드 체재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출판된 것이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이다.

※ 역자 최재석은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경원대, 목원대, 청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 설계·의장'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테일(De Stijl)' 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색채실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 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테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

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은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야기된 주택시장에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 주택법은 당시 자유와 박애주의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¹⁾

이 법 또한 노동자 계급, 부유층 그리고 사회 지도층을 상호 구별하는 독특한 성격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공포와 계급 정치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해결 불가능한 것같이 보이는 것은 거의 없다. 구태의연한 슬럼가는 최저의 임금과 어린이 노동자의 착취와 더불어 그 일부로 발전되었다. 상류 계급에 의한 하류계급의 일반적인 착취는 그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절망시키고 그리고 상류계급이 두려워하는 불안전하고 타협하는 '도의심(conscience)'으로 이어졌다. 이런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혁명, 전염병 그리고 국가적 허약함을 들 수 있다."²⁾

새로운 법 제정의 동기가 어디에 있던 주택법은 주택사업에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주택호수의 증가라든가 질적 개량이라고 하는 요구의 관점에서 보면 주택건설은 기록적인 개선을 달성하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법이 투기세력으로부터 노동자 주택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지역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 주택을 국가적 관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는 데에 있었다.

'주택'이라고 하는 전문적 책임의 새로운 영역과 이를 위한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태는 주택법의 정신과 고유한 내용으로부터 발전되었다. 시대의 소산인 주택법 규정의

옹호 하에 전개된 독자적인 건축이론과의 관련에 주목하여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과 더불어 주택법의 형성배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추적할 필요가 있다.

주택법 제정 이전의 지방자치조례

1902년 제정된 주택법은 네덜란드에서 국가적 규모로 시행된 최초의 합법적인 것이다. 지자체의 규모로 이미 광범위한 법제정의 발전단계에 있었다. 몇몇 경우를 보면 주택법은 기존의 지자체 관습과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지자체 조례는 단편적이며 건설 규제의 본질보다 주택의 외형적인 특징에 대해 더 소극적이었다. 이것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에 대한 폭넓은 믿음의 결과이며 다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대한 간섭을 기피하는 경향을 말한다.³⁾

19세기 이전 지자체의 역할은 지역적으로 화재라든가 붕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에 머물렀지만, 도시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주거환경의 악화는 보다 강한 규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부유층 또한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슬럼가는 시민의 거주지에 인접하여 확장되면서 화재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19세기 의학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전염병 확산에도 관심이 높았다. 거의 모든 지자체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을 위생문제 이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⁴⁾

특히, 암스테르담 시(市)는 오래전부터 목재 건축물을 타르(tar)로 마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1850년대 몇 개의 주택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때를 맞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조례가 작성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선례는 스킨담(Schiedam) 시(市) 조례를 들 수 있다.

이 조례의 내용에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이 열악한 주택에 대해 일정 수준이상으로 개량하지 않으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⁵⁾ 이런 조례 내용을 모방하여 1855년 제정된 헤이그 시(市) 조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시장이나 시의회의 허가 없이 공공도로에 면하여 건물의 건축이나 건축물 파사드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변경할 수 없다."⁶⁾

이 조례에는 공적, 사적 영역의 차이가 절대적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칙적인 규제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건물의 배면이 아닌 정면에 적용되고 있었다. 1860년까지 이와 같은 허가서 없이는 '폐쇄된 공간(closed-off areas)'에 있어서의 주택건설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폐쇄된 지구는 법적으로 호프(hofjes, 그림1~2)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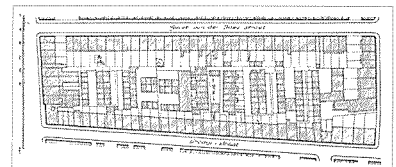


그림 1. 투기성 집합주택 사례의 배치도(헤이그, 19세기 헤이그 시(市)를 시작으로 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투기성 집합주택을 위한 토지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배치도에서 보듯이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정에도 주택이 꼭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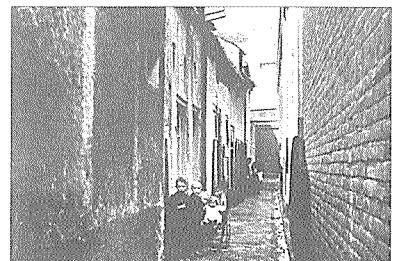


그림 2. 에트르만보스 거리의 전경

1) 주택법, 건강법, 사용자 책임 배상법 등의 법률은 4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50 Jaar Woningwet, 1902-52 (Alphen aan den Rijn, 1952), p.1을 참조할 것.

2) Bauer, Modern Housing, pp.78-79. 바우어(Bauer)는 '이 책 22페이지에서 19세기의 국가위생(century health)은 국가방위(national defense)와 관련이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1880년대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일소 하는데 필요한 실제 비용의 조사가 유럽 전역에 퍼졌고, 1884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생명의 가치에 관한 국제회의는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3) Nycolaas, De huisvesting arbeidende klasse, p.16

4) J.W.G. Floor, Beschouwingen over de bevoeding van de volkshuisvesting (Leyden, 1971), p.4.

5) Brugmans, De arbeidende klasse in Nederland in de 19e eeuw, p.161-162

6) Einge grondslagen voor de stedeboouwkundige ontwikkeling van's-Gravenhage (The Hague, 1948), p.71

그러나, 이 말은 구빈원(救貧院, almshouse)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끔은 부속건물이 지어지는 그 내부의 옥외공간을 가리키고 있다. 토지이용 형태의 강화는 높은 지가(地價)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고 높은 토지가격은 도시의 수평적 확장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1860년에 제정된 헤이그 시(市) 조례는 폐쇄된 공간에 진입하기 위한 입구를 최소한의 폭으로 규정하였으나 5년 후부터 처음 도입된 수치는 감소되었다. 이것은 시(市) 조례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투기업자의 압력에 따른 동요(動搖)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단계적 발전을 잘 나타내고 있는 헤이그 시(市)의 사례를 보면, 1871년 제정된 조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폭이나 방향이 시의회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어떠한 도로도 설치할 수 없다”⁷⁾

이 조례가 적용되는 다른 곳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시의회의 결정으로 정하여졌다. 1878년 폐쇄적 호획형식(hofje system)에 대한 비판이 처음으로 공론화되었지만, 이러한 제기는 폐쇄형 블록형식의 종말을 고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조례는 폐쇄형 블록 내부에서 옥외공간의 폭이 최소한 6m 정도가 되도록 의무화하였다. 1892년 새롭게 제정된 또 다른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시의회에 의해서 승인된 치수, 방위, 건물높이에 따라서 계획된 도로 이외에 접하

는 건물 및 건물 배면에서 10m 이상을 띄우지 않으면 건설할 수 없다.”⁸⁾

그러나 이 조례에는 이격거리 10m 이상의 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이 존재하고 그것이 실제의 규칙으로서 적용되고 있었다.

이 조례에서 볼 수 있듯이 10m 이상의 공유공간을 얻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협소한 골목길에 면한 건물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골목길도 조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불력 내의 공간과 똑같이 제한을 받고 있었다. 헤이그 시(市)에 있어서의 이러한 단계적 발전은 결국 지자체의 투기건설업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문제의 징후를 대처하기에는 충분치 못하였다.

국가적 개혁의 사례

1840년대 후반부터 1850년대 초반에 걸쳐 발생한 심각한 콜레라는 주거환경과 공중위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콜레라가 열악한 주거지역에서 가장 맹위를 떨친다는 보고는 지금부터 논하고자 하는 개선에 대한 모든 노력의 바탕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 국왕은 왕립기술자협회에 주거환경과 관련한 위생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구제 방법을 연구토록 위탁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공중위생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였으나 주택건설의 구조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 제안된 개선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건물은 확정된 계획안에 따라서 독

립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건물높이, 부지면적, 도로의 방향, 건물높이에 따라 건축물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택설비와 관련하여 양호한 환기, 채광, 난방 그리고 구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주택과 관련한 설비와 마찬가지로 화장실, 하수설비 그리고 낙수흐름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⁹⁾

이 보고서는 발표 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헤이그 시(市)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구밀도의 영향 하에 건설된 도시 중심부는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설 가능한 토지공급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토지에 관한 최대한의 자본회수 가능성을 설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¹⁰⁾

1887년 공공복지협회는 노동자 계층을 위한 주택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개혁을 위한 제안이었다기보다는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1894년 또 다른 연구도 이 협회에 위탁되었고 1896년에는 『국민주택의 질문』이라는 도서가 출판되었다. 이 보고서는 주택조합에 저금리로 자본의 대여, 주택조합에 저가(低價)의 토지제공, 일반적인 주택조합의 제정 그리고 슬럼화 된 주택지 일소(一掃)를 촉진하기 위한 토지 수용권의 사용을 추천하였다.¹¹⁾

이런 제안은 당시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1890년 영국에서 제정된 노동자용 주택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국민주택의 질문』이

7) Ibid., p.71

8) Ibid., p.72

9) Ibid., p.71

10) Ibid.

11) Maatschappij tot nut van 't algemeen, Het Vraagstuk der Volkshuisvesting, pp.168-170

출간되고 3년 후인 1899년에 제2의회에 주택 법안이 제출되었다. 주택법은 1901년 제2의회에서 거의 이의 없이 통과되었고 제1의회에서는 찬성 25표, 반대 15표로 가결되었다. 제1의회에서의 표결 시 개인재산의 소유권을 규정하는 상위(上位)기구에서 주택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는 없었다.¹²⁾ 그리고 주택법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관련한 사회적 소산(所産)'이었다.¹³⁾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 자신들의 직접적인 의지의 결과라기보다는 내무, 법무, 그리고 재정 장관에 의해서 작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주택법은 여왕의 최초 승인이 있을 후 1902년 8월 1일 시행되었다.

주택법 : 건축조례

건설수단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주택 자체와 관련된 주택법의 규정은 지자체가 건축조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결국 네덜란드 전 국토에 걸쳐 주거 수준의 개선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 정부와의 역학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주택법은 각 지자체 사이의 건축조례가 통일성을 갖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주택법을 만든 자유 방임주의적 사상을 갖는 장관들에 의해 고정 모델화된 조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¹⁴⁾

대규모 지자체는 소규모 지자체에 비해 주택법의 시행에 앞서 어느 정도 법적 관리의 전통적 결과로서 주택법의 의무규정을 수락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대도시보다 소도시의 주택 도급업자가 오히려 더욱 커다란 힘을 발휘하였다. 건축조례

의 시행에 있어서 지역적인 반대세력에 의해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규정의 적용까지는 1년이 연장되어 2년이 걸렸다. 가끔 지역적 이미지에 기초하여 건축조례가 작성된 경우도 있었다.¹⁵⁾ 그리고 어떤 도시는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작성되는 부분적인 도로계획을 허가하였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런 도시에서의 개인 재산관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반발이 더욱 강했던 것은 부유한 계층에서 발생하였다.¹⁶⁾

주택법의 의무규정 하에서 작성된 첫 건축조례의 대부분은 화상실, 환기, 상수도, 화재, 오수 그리고 쓰레기에 관한 내용이었다.¹⁷⁾ 1906년 시행된 헤이그 시(市)의 새로운 건축조례는 처음으로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옥외공간(중정을 의미함-역주)에 허가받지 않은 헛간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례 내용은 이미 있던 경향을 계승하고 있었을 뿐이다. 주택법 그 자체는 폐쇄형 주동건설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몇 군데의 지자체 조례는 보다 튼튼한 지붕구조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는 처마 밑에 침실을 만드는 중층형 주택을 가능하게 하였다.¹⁸⁾

이런 구조는 자연히 빛과 환기가 어려운 주택 뒤쪽으로의 확장에 비해 유리하였다. 그러나 서구적인 관련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주택법은 불박이형 침상이나 알코브형 취침공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지자체에 의무화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하였다.

이 규정이 암스테르담 시(市)에 의외로 빨리 적용되어 이미 1912년 베를라제가 시행한 암스테르담 시(市) 남부확장계획안에서는 불박이형 침상의 설치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계속 설치해도 좋다는 허가를 하였다. 알코브형 취침공간은 로테르담 시(市)의 건설업자와 개혁자들 사이의 충돌로 1937년까지 금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주택조항은 알코브형 취침공간을 금지하는 지자체의 조례 이전부터 이미 독립된 형태의 침실을 갖는 주택을 건설하고 있었다(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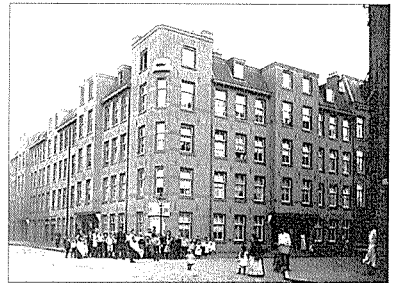


그림 3. 백, 로흐다레 주택조합이 건설한 집합주택 (암스테르담, 반 보닝언 거리), 1909
1902년 주택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건설된 암스테르담 최초의 로흐다레 집합주택은 보다 향상된 주거환경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집합주택이 건설된 이후, 일부의 입주자들은 이전에 살았던 벽장형 침상이든가 알코브형 취침공간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1층의 각 세대는 전용 현관이 배려되어 있고, 건축물의 외부 파사드는 단순한 형태로 처리되어 있다. 이 집합주택은 같은 시기에 건설된 다른 집합주택과 비교하여 절충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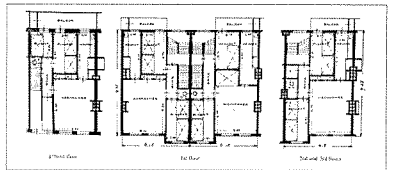


그림 4.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건축조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법은 '건강법(Health Act)'이라는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내에 건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위원회가 암스테르담, 할렘, 로테르담, 아인트, 그리고 네이메옌(Nijmegen)의 각 지자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위원회는 연구 대행이라든가 개선조언자 그리고 주택법의 규정이 경고권 (the power of

12) Nycolaas, pp.16-17

13) Floor, Beschouwingen, p.2

14) Prak, Zeventig jaar woningwet, p.30

15) Nederlandsch Instituut voor Volkshuisvesting en Stedebouw, De Woningwet 1902-29(Amsterdam, 1930)

16) Ibid., p.284

17) 50 Jaar Woningwet, p.75

18) Prak, p.30

condemnation)을 행사할 경우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주택법 : 건설 대행자

주택법의 최대 장점이자 업적 중의 하나는 투기시장으로부터 질 낮은 임대주택을 일소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있다. 이 법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여왕의 인가를 받았다.

비록 지자체라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저당권(mortgages)을 얻을 수 있었다. 협동조합 운동은 주택법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 10년 동안에 현저하게 발생하고 더불어 조합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906년까지 14개의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1918년부터 1920년 사이에는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으로 인해 무려 743개의 조합이 1922년까지는 1,341개의 조합이 설립되었다.¹⁹⁾

모든 조합이 협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1903년 암스테르담에서 설립된 로흐다레(Rochdale)라고 하는 주택조합은 폭넓은 협회운동과 그 당시 사회 민주 정치의 힘으로 주택법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로흐다레라고 하는 이름은 1844년에 설립된 영구소비자협동조합-오웬과 포리에(Owen and Fourier)-의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 지방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협회라든가 지자체의 주택국 및 건설위원회의 수와 힘의 증대는 나중에 건축가가 주택설계의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의사결정의 일차, 부분보다는 전체의 강조 그리고 건설위원회가 거주자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건축가들이 주택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었

다. 협동조합이라든가 지자체에 의한 주택계획에서 건축가는 강한 공동체의 상징적, 기능적 의미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택법: 도시계획

주택법의 규정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오늘날의 문제를 적절하게 돌이켜 보면-은 도시계획을 규정하는 점에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시의회가 도로건설을 확장한 지역에서 건축을 금지하도록 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²⁰⁾ 도시계획 규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10,000명의 거주자 및 지난 5년 동안에 20퍼센트 이상의 인구증가를 보여준 지자체는 도시 확장계획을 책정할 것을 의무화시키고, 10년마다 계획이 수정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지자체는 이미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도시 확장계획의 대부분은 1886년 암스테르담시의 건축기사인 니흐트릭(Niftrik)이 작성한 암스테르담 시(市) 확장계획안과 거의 비슷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확장계획'에 근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의 규정은 간단하게 말하면 시가화 구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지태의 이념이 보편화될 즈음에 명료해진 것은 '주택은 도시직물(都市織物)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강하게 부여했다는 것에 있다. 예를 들면, 헤이그(그림 5~6), 암스테르담(그림 7), 유티레흐트의 각 도시에 있어서 중요한 확장계획안을 작성했던 건축가 베를라헤에게 있어서는 건축가가 관여하는 영역의 규모가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이 도시에 관한 모든 영역에 걸친 계획에 관여한 베를라헤는 주택이 도시계획가의 기본적 관심 대상이라는 인식을 부가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주택법의 양상이 네덜란드의 도시계획분야에서 공헌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겠다. 1918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국민주택조합'(이 조합의 명칭은 1923년 네덜란드 국민주택·도시건축협회라고 바뀌었다)의 창설자인 후디흐(D.Hudig)는 1924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주택회의에서 지역계획의 이념을 도입하였다. 그 이후 10년 뒤에 작성된 암스테르담 시(市) 남북확장계획안은 이 분야에서 가장 세련된 것이다.

발전의 문맥

새로운 주택법의 즉각적인 시행이 뒤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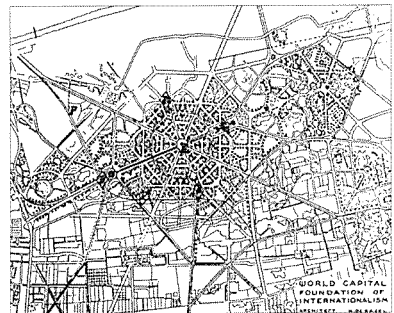


그림 5. 바젤, 세계도시의 계획안(헤이그), 1905
20세기 초기, 도시계획 이념의 다양한 흐름이 세 개의 계획안에 잘 반영되어 있다. 바로크적 계획, 지리적 계획의 전통이 베를라헤와 바젤의 헤이그 시(市) 확장계획안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바젤과 뷔드벨트가 같은 시기에 관계하고 있던 신지학 운동(the theosophical movement)은 두 건축가에게 영향을 끼쳤다. 베를라헤가 하워드 전원의 도시이념을 해석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자신의 계획안은 바젤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뷔드벨트 계획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녹지대의 고층 집합주택군은 다른 3개의 계획안과 비교하여 환상성(幻想性)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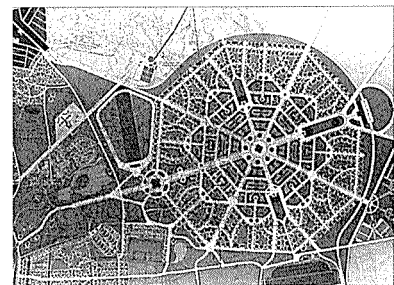


그림 6. 베를라헤, 헤이그 시(市) 확장계획안, 1909

19) J. Bommer, Organen bij de Uitvoering van de Wet: Woningbouwvereniging in 50 Jaar Woningwet, p.58
20) Nederlandsch Instituut voor Volkshuisvesting, Dutch Housing Legislation (날짜 없음, 1920년으로 추정),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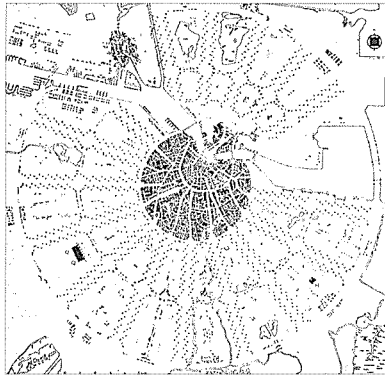


그림 7. 뷔드벨드, 암스테르담 시(市) 확장계획안,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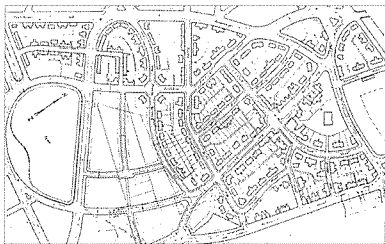


그림 8. 뮐러, 어드 란싱고 전원마을의 배치도(헨헤로), 1911
이것은 헨헤로 주택조합(1867)이 건축한 주택단지로, 단지의 형성은 스톡의 발의와 헨헤로 기업가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 전원마을은 의도적인 남북축 배치계획과 입주자의 수입에 따라 주거형식을 달리하여 계획한 혁신적인 것이다. 이 전원마을은 공간을 축으로 하는 중앙광장과 개방적인 배치계획에 전통적인 주택 이미지를 혼합시킨 수법으로 네덜란드에서 모범이 되었다.

하였다. 주택법의 재정적인 원조를 받아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건설된 가장 혁신적인 집합주택의 사례로는 헨헤로에 있는 어드 란싱고 전원주택단지(그림 9~10)와 로테르담에 있는 브레이베익 전원주택단지를 들 수 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플러크에 의해 노동자용 주택에 현대적 미학성을 적용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지어진 스파르담머 근린지구에 있는 에이언하르트 집합주택을 들 수 있다.

1918년까지 이런 진전은 급속하게 진행되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중립적 상태가 이를 유지시켜 주었다.²¹⁾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은 1921년에 이르러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최고의 전성기를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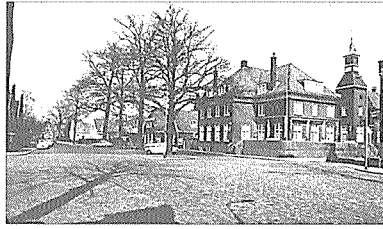


그림 9. 주택의 전경



그림 10. 주택단지 중정의 전경

이하여 19,298세대나 건설되었다. 주택법은 민간기업에도 커다란 활력을 주었다. 1923년까지 민간기업은 주택공급의 절반을 담당하게 되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유아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되면서 1899년부터 1920년에 걸쳐 인구는 27퍼센트 증가하였다. 또한 방 한 개당 점유 인원수가 1900년의 1.65인에서 1930년에는 0.95인까지 감소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시기에 2실 이하로 구성된 주택의 비율은 60퍼센트에서 23퍼센트까지 감소하였다.²²⁾

그러나 이런 사실은 변화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네덜란드 집합주택의 전개와 집합주택에 거주한 사람들과 관련지어 당시 건축가들이 집합주택의 성격에 어느 정도 공헌을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새로운 이념이 건축가에 의한 성과라 하더라도, 이런 작업이 192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10년 앞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카미로 지테의 영향

최근 네덜란드 집합주택과 관련한 자료에서는 카미로 지테(Camillo Sitte:1843-1903)의 중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지테의 저서인 『예술원리에 기초한 도시계획』이 1889년 오스트리아 빈(Vienna)에서 출판되었다.²³⁾

빈의 현대화 작업과 광범위한 여행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낸 이론은 지테가 결론에 이르기 위한 고전, 중세, 바로크 공간에 대한 분석에 있었다. 지테는 건물을 고립화시키는 고전주의적 배치계획을 비난하고 이미 논한 3가지의 역사적 패턴으로부터 건물상호간의 관계가 그 자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같이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서 건축을 개념화하였다.

도시계획에서 지테의 접근은 U자형(concave)-둘러싸여 있는(enclosing)-공간적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런 공간을 미학적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옹호하고 있었다. 지테는 “공간의 존재적 가치를 강조하고, 무엇이 행위적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²⁴⁾ 그러나 공간에 있어서의 기본 구성법은 미학에 기초한 것이다.

‘불규칙성, 비대칭, 폐쇄성, 다양성 그리고 매스의 연속성과 요소적 접속(irregularity, asymmetry, enclosure, diversity, continuity of mass, and connecting elements)은 시각적 효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찰된 것이다.

1세대 건축가 : 베를라헤

지테의 이론을 네덜란드에 소개한 것은 건축가 베를라헤였다. 1892년 3월 초, 건축

21) 1918년 90퍼센트의 국가자금과 10퍼센트의 지자체 자금으로 반영구적인 주택을 건설할 것을 긴급 입법화 하였다.

22) ‘이들 나라 중 어느 한 곳도 네덜란드에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1918년 시점에서 존재했던 대량의 주택공급 부족을 경험하지 않았다’. Bauer, p.120. 여기에서 사용한 숫자는 50 Jaar Woningwet에 의함.

23) 지테의 중요성은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를 들면, 후디흐(D. Hudig), Stedebouw, De Socialistische Gids, X(January 1925), pp.63~64를 참조할 것.

24) Choay, The Modern City: Planning in the 19th Century, p.105

촉진협회²⁵⁾ 암스테르담지부 주최의 강연에서 베를라헤는 지테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베를라헤의 지테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지테의 미학적 가정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능주의적 이상을 외삽(外挿)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베를라헤가 일반대중에게 지테의 이념을 설명하게 될 경우, "폐쇄성 미학(the aesthetic of closure)은 민중을 위해서 유익하고 일상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²⁶⁾라는 것이다. 베를라헤는 이런 해석을 주거에 직접 응용하였다.

"정원이 많은 적든 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야 한다. 도로에 면해서는 개방적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을 둘러싸고 있다. 2개 혹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출입구로 출입이 가능하다. 비록 이런 정원이 방어적일지라도 결과로서의 주택의 긴 형태는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된다."²⁷⁾

이것은 주택 배치계획의 형식에 관한 언설로 네덜란드 전 국토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테와 베를라헤에 의해서 고찰된 연속성을 갖는 집합주택은 연속하지 않는 주동으로 형성된 도시직물의 결과로서 측면도로와 연속적 전체, 그 이상을 차지하는 모서리 주택으로서 단속적(斷續的) 반복 이상의 미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관심은 특히 바로크 이념으로부터 발전된 것이고, 다양한 도시 확장계획에서 베를라헤는 바로크의 실례로서 폐쇄적으로 개조된 파리를 가장 상찬하였다. 모든 건물들은 하나의 전체(one total)²⁸⁾를 형성하기 위하여 통일되어야 하는 원리는 1899년 암스테르담 시(市) 도시 확장의 초기계획에서부터 적용되었다(그림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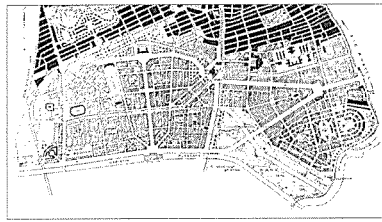


그림 11. 베를라헤, 암스테르담 시(市) 남부확장계획안, 1915
베를라헤의 확장계획안은 브린크만, 지테, 어윈의 영향을 반영한 도시적 비전이 되었다. 거리, 주동 그리고 특히 강조된 랜드마크적 건물은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도시규모로서의 공간적 개방성은 보이지 않는다. 베를라헤는 1915년 계획된 전원도시지구 설계경기 1등 당선 안을 기본으로 하여 확장계획안에 적용시킴으로써 '도시확장계획'과 '전원도시이념'을 통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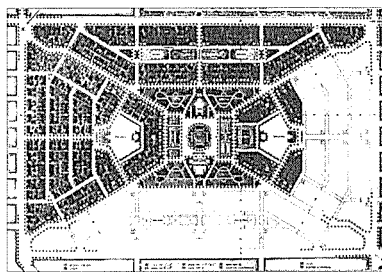


그림 12. 렘코, 전원도시 지구 설계경기 1등 당선 안, 1915
이 설계경기는 '민주적 기술자?건축가로 구성된 사회기술협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테마는 '주택과 정원'으로, 렘코(J.F.Repko)가 1등으로 당선되었다. 심사위원장에 베를라헤, 심사위원 비서에 케플러(A.Keppeler)가 담당하였다.

브린크만(A.E.Brinkman)의 『광장과 모뉴먼트』(1906)의 저서가 1915년 베를라헤의 암스테르담 시(市) 남부확장계획안에 넓은 가로수 길(wide avenues)을 도입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지테의 이념은 이런 계획의 정당성에 비판적으로 작용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베를라헤가 1918년 지테의 이념을 주택 표준화 옹호에 적용한 것을 고찰하고자 한다.

1915년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에 대한 베를라헤의 해석은 거의 대부분 실제 계획의 묘사와 주동형식의 옹호로 구성되었다.²⁹⁾

합리성(rationale)은 폐쇄성 그 자체만이 바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규모의 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도시의 통일성을 보다 효

율적 효과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단독주택 건설이 예외인 점을 지적하면, 주택건설이 점점 대량생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베를라헤는 강조하고 있다.³⁰⁾

베를라헤는 초기에 주어진 주동형식을 관찰한 결과, 이런 형식은 각각의 주택이 독립하고 있다는 예외적인 사례도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시각적 통합성은 다양한 전체의 일부라는 건축양식의 통일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르네상스와 나폴레옹 시대의 주동 형식은 대규모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런 전통은 19세기 단조로운 가로 나열식 주택 형식만이 통일성의 원리에 대한 해답으로 보여주지 시작하면서 소멸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게다가 통일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스의 연속성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베를라헤는 갖고 있었고, 이런 주동형식을 다시 한번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³¹⁾

베를라헤 또한 통일성을 가로와 광장이라는 언어로 개념화하고, 그리고 도시공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동형식에 관한 높은 관심은 건축가가 각각의 주택을 분리시켜 보여준 형태의 태화(degeneration)에 대한 반영이었다.

나중에 베를라헤의 사회주의적 관점이 좀 더 심화되었을 때, 이것은 미학에 대한 해석이 반복성(repetition), 연속성(continuity), 다양성의 통일(unity in diversity)이라고 하는 사회적 이념의 상징화를 통하여 강조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베를라헤는 본질적인 미학적 기원과 의도를 훨씬 뛰어넘어 지테의 이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영국의 도시계획가 어윈(Raymond Urwin)은 베를라헤와

25) Berlage 강연의 전문은 De kunst in Stedebouw라는 타이틀로 Bouwkundig Weekblad, 12(1892), pp.97-91, 101-102, 121-124, 126-127에 연재되어 있다.
26) Ibid., p. 123
27) Ibid., p. 126
28) Ibid.
29) H.P. Berlage, Memorie van Toelichting behoorende bij het Ontwerp van het Uitbreidingsplan der Gemeente Amsterdam, March, 1915, Gemeenteblad, Part I (Amsterdam, 1917), pp.910-915에 수록되어 있다.
30) Berlage, Memorie van Toelichting, pp.910-911.
31) Ibid.

지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다른 건축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어윈이 1909년 저술한 『도시계획과 그 실제』는 지테(Sittesque) 풍의 논쟁과 그림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지테풍의 특성이 네덜란드 교외지역(garden suburbs)에서 볼 수 있으며 직접적인 지테의 영향이 아닐지라도 그 영향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³²⁾

2세대 건축가 : 아우드

지테의 이념 또한 건축가의 실험을 통하여 네덜란드에서의 적용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 건축가들은 지테 이론이 베를라헤의 접근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대표적인 건축가로 아우드(J.J.P.Oud, 1862~1938)를 들 수 있다.

아우드는 1911년 여름, 뮌헨(Munich)에 있는 피셔(Theodor Fischer, 1862~1938)의 사무실에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아우드는 베를라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피셔는 “지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한 근대 도시계획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³³⁾

그는 1893년 이래 뮌헨의 도시 확장계획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이 작업의 상세도는 스티벤(Stubben)계획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어판의 지테 저서에 게재되었다. 아우드가 1911년 뮌헨에 체재하는 동안 어떤 일에 관여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테 이념의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아우드가 뮌헨을 방문한 동기가 지테에 대한 피셔의 열광적인 관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1917년 7월 아우드는 『기념비적 도시경관』을 집필하였는데, 이 논문은 같은 해 더스틸 창간호(1917.8)에 게재되었다. 여기서 베를라헤의 이념을 계승하는 보편성과 기념비성에 대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아우드는 “도시는 일반적으로 가로(the street)와 광장(the square)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 주택을 잇는 실(絲)로써, 그리고 가로의 초점으로써 광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³⁴⁾라고 기술하고 있다.

무엇이 순수한 지테풍 이념(Sittesque idea)인가를 알기 위해서 아우드는 가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전체로서의 가로 경관(street picture as a whole)’이어야만 한다는 접근이다. 왜냐하면 “블럭의 건축물들(building in blocks), 혹은 대규모로 집합화된 건축물군(large groupings)은 개별적인 건물로 대체되어 갈 것이다.”³⁵⁾

그러나 아우드는 주동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재료의 사용, 리듬의 강조 그리고 슬라브 지붕의 사용으로부터 이끌어내어 베를라헤의 생각보다 한발 앞서 있었다.

로테르담시 건축가로서의 아우드는 당시 두 가지의 대형 프로젝트-스뵐언 집합주택과 뫼스덴다이건 집합주택에 관여하였다. 여기서 베를라헤-지테의 전통이 강하게 투영되었다. 이런 계획적인 측면에서 아우드는 장래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새로운 미학적 접근을 구체화시켰다.

1919년 브리크만의 스뵐언 집합주택 또한 폐쇄형 전통이라는 축에서 이해되고 있었다. 여기서 폐쇄형 주동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더욱 개방적인 계획에 편승하는 전원도시주택의 접근에도 차용되고 있었다.

매스의 연속성(the continuity of mass)

과 공간으로서의 건축(architecture as space)에 대한 이념은 베를라헤와 지테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아우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폐쇄성의 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로테르담의 기프훅 집합주택에서 옥외 주거공간의 연속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만큼 폐쇄성의 역사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었다. 절충주의(eclecticism)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면서 지테의 이념은 중세주의(medievalism)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일면이 있다. 게다가 아우드보다도 지테 쪽에 더 거리를 두려는 건축가는 지테의 계획적인 접근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 하였다.

1932년, 기능주의 건축가 다위꺼르(J. Duiker, 1890~1935)는 『합리적 건설요강』이라는 논문을 CIAM에서 출판하였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테의 유산인 ‘미학적 고찰’, 이것은 건물의 폐쇄성, 즉 가로의 절점에서 가끔 악센트를 주는 막다른 골목길에 대한 고찰이다. 거짓의 친밀성으로 이웃에 남아 있는 소량의 쾌적성을 없애기 위한 극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가장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즉, ‘폐쇄된(closed)’ 주동의 안쪽 코너에 약간의 빛을 얻기 위해서 끊임 없이 혼란스러운 평면계획에 중지부를 찍겠다(한 번 더 반복하면 미학적 고찰에 기초한 폐쇄성인 것이다).”³⁶⁾ ㉮

32) H.A. J. Baanders의 서명이 들어간, 1901년 발행의 지테의 저서(3판)가 암스테르담의 Documentatie Centrum voor de Bouwkunst에 보관되어 있다. Baanders는 1915년 로테르담에 건설된 Heyplaat Garden Village의 건축가이다.

33) G.R. and C.C. Collins, Camillo Sitte and the Birth of Modern City Planning (London, 1965), p.77. 지테의 영어판 City Planning According to Artistic Principles (London, 1965)도 참조.

34) J.J.P. Oud, Het Monumentale Stansbeeld, De Stijl, I, No.1(1917), p.10.

35) Ibid., p.10.

36) J. Duiker, Boekbespreking, De 8 en Opbouw, 3, No.6(1932), p.61. 이것은 CLAM에서 발행된 합리적 건설요강(Rationelle Bauungsweisen) (Frankfurt, 1931)의 서평이다.